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76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 신청·접수 개시
- ‘워크스루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19명 검사
- 원희룡 “황금연휴 앞둔 시점, 방심하긴 일러…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2020. 4. 1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 4. 19.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 4. 19.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13명 (격리 중 7명, 격리해제 6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확진자 접촉	해외 입국
제주	4,258	13	6	7	0	4,245	59	4,186	31	545*
증감	+115	0	+1	-1	0	+115	+4	+111		
전국	559,109	10,661	8,042	2,385	234	12,243	14,186	536,205	격리해제 641	

※ 전국통계는 질병관리본부, 제주통계는 자체 집계 통계 /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자 검사내역['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구분	검체채취			검사내용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양성	음성	확인 중
4/17	32	24	8	32	-	32	-
4/18	19	14	5	19	-	13	6
누계(3.30.~)	809	661	148	809	2	801	6

※ '20.4.16. 0시 기준 제주도 자체통계

□ 자금지원동향['20.4.17.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15건/ 76명	1,215건/ 12,944명	115건	14,190건	215건	11,120건	52건	1,212건
처리	26건/ 1.80억	103건/ 7.29억	109건/ 39억	6,285건/ 2,410억	92건/ 21.2억	3,619건/ 1,031.4억	-	1,043건/ 1263.5억

□ 입도객 현황 ['20.4.18.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5,925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3.7%)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5,925	15,902	23	0	3	20
	2019년	43,847	39,433	4,414	2,411	298	1,705
	증감률	△63.7%	△59.7%	△99.5%	△100%	△99.0%	△98.8%
누계 (2.23.~)	2020년	853,096	846,125	6,971	563	642	5,766
	2019년	2,162,192	1,923,620	238,572	132,303	14,407	91,862
	증감률	△60.5%	△56.0%	△97.1%	△99.6%	△95.5%	△93.7%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집계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4. 19.(일)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보도자료 PRESS RELEASE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10-2100
		정책기획관	강만관	710-2230
		비상경제상황실장	고경민	710-3950
동영상 (웹하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후속자료: 있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 신청접수 개시

- 신청기간 4.20(월) ~ 5.22(금) / 4.20(월) 온라인 신청, 4.27(월) 오프라인 신청 개시 -
- 신속처리 위해 기준 단일화... 자체 프로그램 갖춘 온라인 신청페이지도 구축 -
- 원희룡 지사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자문단 행정사읍면동 전담팀 구성 등 철저 대비” 지시 -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20일)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kr>)를 자체 개발했다.
-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 가능케 했고,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 심사 → 지급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감안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 신청기간은 4.20(월)부터 오는 5.22(금)까지 총 33일이며,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5부제 적용 방법**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월	화	수	목	금
1·6	2·7	3·8	4·9	5·0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 온라인 신청 5부제는 4.20(월)부터 5.8(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은 4.27(월)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27(월)부터 5.8(금)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 5부제 기간 내 공휴일(4.30,5.5.)의 경우 익일 방문해 처리 가능
 - 제주도는 현장 신청과정 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접수창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 또한 갖출 계획이다.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신청·접수 → 심사 →

지급)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예) ①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주형), (정부안) 모두 지급대상
②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부, 자녀 등의 경우 (제주형) 지급, (정부안) 미지급

○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여부 또한 즉시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 행정시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심사업무 및 읍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하는 추진반을 구성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 나아가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4.20(월) 개시와 함께 상담(전화: 710-6231~44)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불편 최소화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고 “신청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해놓을 것”을 지시했다.

- 또한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참 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200,000	1,757,000	59,118	29,078	-
2인	300,000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400,000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500,000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제주특별자치도 <small>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mall>		2020. 4. 19.(일)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후속자료: 있음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19명 검사

- 제주도, 해외방문이력으로 총 809명 검사... 19일 0시 기준 자가격리자 총 576명 -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 19명(내국인 14명 · 외국인 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 제주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를 운영하고 있다.
- 어제(18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19명 중 13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금일(19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 피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다.
- 이로써, 4월 19일 0시 기준 제주 지역 내에서는 총 809명(내국인 661명 · 외국인 148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에 들어간 바 있다.

□ 제주도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9일 0시 기준 총 576명이다.

○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31명이며,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545명이다.

□ 한편, 18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5,925명이다.

○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3.7%가 감소한 수치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원희룡 ‘황금연휴 앞둔 시점 방심하긴 일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제주도, 행락철, 황금연휴기간 중 관광객 대거 입도예상... 현 체제 지속 방침 -
- 입도객 및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 위한 진단검사 범위 확대도 검토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놓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정부가 19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고강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제주도는 행락철 및 황금연휴 기간(4.30~5.5)를 맞아 관광객이 대거 입도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전개한다.
- 앞선 17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4/19) 종료 관련 시·도 의견조사에서도 연장 의견을 제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합동브리핑에서 “강화된 코로나 방역 대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완화되면,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며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전면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점을 이해해주시고 동참해달라” 고 호소하면서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종식 및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 우선 제주도는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해외방문이력자와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그 동안 2차 감염자 1명(도내 11번째 확진자)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입도객과 접촉자 방역 역량을 집중하면서 2차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아울러 제주도는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방역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유관부서 및 전문가 등과 진단검사 대상자 범위를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 또한, 제주도는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이용기관 일시 폐쇄를 유지하고, PC방, 학원,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소독 및 방역수칙 점검도 지속 전개한다.

○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도 현행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인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한 데 이어, 3월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 3대 실천 수칙* 실천 호소문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다.

*①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 자제 ②개인위생수칙 준수 ③배려 문화 조성

- 사회적 거리 두기 대상은 공항·만, 콜센터,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게임장, 영화관, 공연장, 골프장, 체육관, 유흥·단란주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학원, 교습소 등 총 5,851개소다.
- 제주도는 제주도-행정시 합동점검반(532명)을 구성해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1만7,646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방법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